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해냈다

전북 브랜드 이미지 제고 좋은 기회

도, 도전·열정으로 역대 규모 국제행사 이뤄 내... 경제 파급효과 796억원 예상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는 우선 가장 젊은 땅, 미래의 땅 대한민국 새만금(부안)에서 168개국 세계 5만여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축제가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 세계 168개국 5만여명 참여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세계잼버리는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픽아 스타디움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아영대회로 2019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리고, 2023년 제25회 대회가 168개국 5만여명이 참가해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게 됐다.

전북도는 민선6기 송하진도지사 취임 이후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제행사 유치를 검토,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결단하고 2015년 국내후보지 경쟁(강원도 고성)을 뚫고 대륙별 지구촌을 무대로 폴란드(그단스크)와의 치열한 경합을 이겨냈다.

한마디로,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는 '도전'과 '열정'의 성과물이다.

전북도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전력투구해 온 것은 대회 개최로 인해 파급되는 유·무형의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민선6기 송하진 도정에서 '한국 속의 한국'을 표방해 왔고,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적 자산을 성장하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가 대표 한류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북은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특히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 예산 부담이 크게 없고, 참가인원들이 전액 자비부담으로 참여하는 대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청소년들이 10일 이상 직접 체류(아영)하면서 경험하고 소비하는 직간접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 개최 기간동안 발생하는 지출비용이 100% 전라북도도 투입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796억원이며,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는 1,054명(전북 804명)으로 기대되며,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도 약 203억원(전북 203억원)으로 예상됐다.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농림수산물과 도소매업으로 식재료 구입 등으로 인한 산업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대회 성과를 비취 볼 때 도로 확포장과 환경개선 등 지역발전과 국내 예술, 공연, 체육 등 다양한 문화발전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신뢰가 크게 향상돼 외교적 수교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잼버리대회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해 지방비와 국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자비용, 친환경, 고효율 대회로 치러내겠다는 계획이 있다.

특히 지역 발전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대회 유치가 새만금 SOC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잼버리 유치로 현재 정부 관련 부

처와 밀도 있게 추진 중인 새만금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조기 구축에 탄력이 붙고, 새만금 사업의 개발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명품복합도시로 녹색친환경 개발을 추진 중인 새만금이 친환경 평화 추구라는 잼버리 이상과도 부합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현재 전 세계스카우트 1억명을 목표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과도 맞아떨어져 중국 진출 계기(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전북도는 향후 잼버리 개최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관련 법규 및 조례 제정, 조직위원회 구성(연차별 단계별 로드맵 마련), 관련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프로그램 마련과 자원봉사자 양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잼버리와 새만금의 시너지를 위해 가정 '국제 청소년 드림특구'를 새만금에 지정하고, 특구 내에 제2상설 아영장을 만들어 세계스카우트센터 유치, 잼버리 호스텔 등 핵심시설을 갖춰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믿고 드셔도 됩니다"

17일 '살치미 제란' 파문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구내식당 메뉴 중 하나로 제란(살은 달걀)이 나왔다. 도 교육청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용란 살치미 검사결과 증명서를 식당에 명시했다.

위기의 식물자원 지키기 돌입

기후변화 가속화·자연재해에 멸종·감소 위험 빨간불 도 산림환경연구소, 종합적 보전관리 시스템 구축 나서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자생식물의 서식지 이동 추세가 심화되고 식물의 생육 환경이 변화되어 멸종 또는 감소 위기에 처한 산림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 연구사들이 2003년부터 도내 천연기념물(식물)을 대상으로 깎아미(삼목), 접붙이기(접목) 등 무성번식을 통해 후계목 증식사업을 추진, 2009년 도내 대이수목원내에 전국 최초로 천연기념물 후계목동산(3,000㎡)을 조성, 우수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무의 대를 잇는 이 동산에는 전주 삼천동 곱솔(천연기념물 355호), 장수군청사 의안송(397호), 김제 봉남면 왕버들(296호) 등 18종류 421본의 천연기념물 후계목들이 한곳에서 자라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익산 망성면 신작리 곱솔(188호)이 번개에 맞아 고사되자 연구소측은 미리 키워둔 후계목을 어미나무가 있던 자리에 심어 명맥

을 잇기도 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추가로 지정된 도내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후계목을 육성하여 2020년에는 연구소 고원화목원내에 제2의 천연기념물 후계목 동산을 조성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물종들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도내 3개소(내장산, 변산반도, 대이수목원)에서 구상나무, 주목, 굴거리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종 50종(산림청 지정)을 대상으로 개화·개엽·결실시기 등 생물계절 모니터링 및 적응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기후변화는 물론 개발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산림청 및 각 시군 등과 자생지 복원사업, 생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도내 귀중한 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민 마음 모아 진심으로 환영"

김승수 시장,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선정 축하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되자 김승수 전주시장(사진)이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 이어 "그간 대회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땀과 노력은 대한민국 미래의 땅이자 희망의 땅인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용기를 키워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세계잼버리대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세계잼버리대회는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동북아 경제허브 중심지로 개발하는데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에서 펼쳐질 세계잼버리대회가 세계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폭행 의혹 장애인시설 특별감사

도, 감사팀 구성 보조금사업·인권실태 등 중점

전북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25일 까지 5일 동안 폭행의혹 등 민원이 제기된 전주시 소재 모 장애인복지관과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경 발생한 도내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이용 장애인 폭행 의혹사건을 발단으로, 장애인 유관단체의 감사요청을 수용하여 진행된 것이다.

도에서는 감사관실, 인권센터와 시군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분야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인권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보조금사업, 인

권실태, 시설운영 전반을 중점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인권유린 문제와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향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시설 및 법인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특히,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